

I Must Also See Rome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Acts 19:21-41

■ Praise and Sharing

☞ Hymn 445

☞ Share with one another about how your week has been.

There are times when we are left feeling hopeless because we face unexpected interference as we try to run toward a clear vision from God. However, God is with us and helps us overcome the difficulties in those situations. When Paul finished his third missionary journey, he wanted to return to Jerusalem and finally see Rome. However, Paul's journey started having complications from the first step. The people of Ephesus revealed their hostility toward Paul and his company because of a riot caused by a few people.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비전을 향해 힘써 나아가려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방해에 막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시며 난관을 넘게 하십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로마에 이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여정은 첫 단계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몇몇 사람의 선동 때문에 바울 일행에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 The Word and Sharing

1. After Paul decided to go to Jerusalem, he faced a shocking situation (vv. 21-31).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후 난처한 일을 겪습니다(21-31절).

1) What did Paul say when he decided to go to Jerusalem (v. 21)?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면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21절)?

2) For what cause did Demetrius stir up those in the god making business and the people of Ephesus (vv. 23-27)?

데메트리오는 신상 제작 산업 관계자와 에베소 시민을 어떤 명분으로 선동합니까(23-27절)?

3) Why did Paul not enter the theatre (vv. 30-31)?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30-31절)?

<Share 1> Paul's visit to Jerusalem at the end of his third missionary journey was not the end of his ministry, but the start of Act 2 of his missionary work in Rome. Rome was the target of Paul's new missionary vision. Share about the 'Rome' you want to have, which is a new ministry you want to attempt.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사역의 마무리가 아니라 로마를 향한 선교 2막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는 바울의 새로운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로마', 내가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사역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Share 2> Even before he began his journey toward Rome, he faced a crisis in Ephesus. Even when we work with a vision from the Kingdom of God, we can face unexpected situations at any time. Share about a time you experienced unexpected difficulties while pursuing a vision for the Kingdom of God.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에베소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일하더라도 언제나 돌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하다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2. When Paul and his company faced a crisis, God cared for them through his invisible hands (vv. 32-41).

바울 일행이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돌보십니다(32-41절).

1) Although the people of Ephesus cried out for Artemis for two hours in the theatre, what did they not know (vv. 32-34)?

에베소 사람들이 연극장에서 2시간 동안 아테미 신을 연호하면서도 경작 알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32-34절)?

2) What were the grounds on which the town clerk urged the crowd to break up (vv. 35-41)?

서기장이 해산을 설득하며 제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35-41절)?

(1) v. 37:

(2) vv. 38-39:

(3) v. 40:

<Share 3> God stopped the senseless group behaviour of the people of Ephesus through the rational judgement of the town clerk. God helped Paul's company without showing Himself. Share about a time you escaped a crisis because of the help of God's invisible hand.

하나님은 에베소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집단행동을 서기장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바울 일행을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 위기를 모면한 경험을 나눠봅시다.

■ Pray Together

Lord, please show me the 'Rome' to which I must go to fulfil the visio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비전의 성취를 위해 내가 가야 할 '로마'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소서.